
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6(수) 14:00부터 보도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---	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, 금융정책과, 산업금융과, 은행과, 자산운용과, 보험과, 신용정보팀			
책 임 자	김동환 과장(02-2156-9490)	담 당 자	윤덕기 사무관(02-2156-9491) 송현지 사무관(02-2156-9488) 김경수 사무관(02-2156-9493)	
	권대영 과장(02-2156-9710)		서 준 사무관(02-2156-9713)	
	최용호 과장(02-2156-9750)		윤동욱 사무관(02-2156-9671)	
	이윤수 과장(02-2156-9810)		송용민 사무관(02-2156-9814) 정종식 사무관(02-2156-9812)	
	안창국 과장(02-2156-9890)		정태호 사무관(02-2156-9899)	
	이동훈 과장(02-2156-9830)		권기순 사무관(02-2156-9835)	
	남동우 팀장(02-2156-9604)		신상훈 사무관(02-2156-9606)	
배 포 일	15.5.4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6매

제 목 : 국민편의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」

I 개 요

- 금융위원회(위원장 : 임종룡)는 '15.5.6(수)에 개최된 제3차 「규제개혁 장관회의」에서 「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」을 보고
 - 핀테크 산업의 창업·성장 촉진,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,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
 - 동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융·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IT와 금융분야의 융·복합 규제혁신 사항으로
 - 주요 보고 내용은 지난 1월 발표한 「IT·금융 융합 지원방안」 중,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임
- ※ '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'은 5월 중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

II 주요 보고 내용

1. 핀테크 산업의 창업·성장 촉진

◆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

(1)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

- (현 황)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
- (개선안)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, PG,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(예 : 1억원)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

(2)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

- (현 황) 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^{*}함에도,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,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 미흡

* 금산법, 금융지주회사법, 은행법 등은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다고 규정

- (개선안)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·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

- 전자금융업, 금융전산업,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^{*}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

* (예)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·제공, 금융 데이터 분석 등

- 또한, 핀테크 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

(3)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

□ (현 황)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,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

□ (개선안)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* 지원 활성화

* 산업은행, 기업은행은 '15년 중 2천억원(각 1천억원)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

○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*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** 지원

* (산업은행)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

** (기술보증기금) 보증료 감면(1.3→1.0%), 보증비율 우대(85→90%) 등

※ 자금지원 심사시 Demo day(핀테크 지원센터)를 통해 금융회사 1:1멘토링을 수료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

(4)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

□ (현 황)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

□ (개선안)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

○ 책임분담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제고 유도

* 핀테크 기업도 원활한 제휴 등을 위해 본인의 고의·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

2.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

◆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

(1)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

- (현 황)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, 금융회사는 '대면*'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 →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

*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상의 사진과 내방고객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식별

- (개선안)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*을 허용하되, 복수(2개 이상)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

* (예) 신분증 사본 제출, 영상통화,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, 기존계좌 활용 등

(2)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

- (현 황)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

* 자본시장법 개정안('13.6.12, 국회 제출→ '15.4.30,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)

- (향후 계획) 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* 지정,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

* 발행인의 모집금액 한도 및 투자자별 1회 및 연간 투자 한도 관리

** 증권회사·예탁원·중앙기록관리기관·신탁업자간 전산 연결, 투자자명부 구축 등

- 또한, 정책펀드,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* 조기 출현 유도

* (펀딩 예상분야) 모바일 콘텐츠, 하이테크 제품, 게임, 패션, 전자상거래 등

(3)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

- (현 황) 증권·보험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 중이며, 해외에서도 틈새시장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유도

- (개선안)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,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

*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('15.6월 예정)

(4)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

- (현 황) 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·검색하여 가입하기 곤란
 - (개선안)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*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의 비교·검색·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(보험슈퍼마켓 등)의 출현·활성화를 지원
- * (예)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 가입하는 온라인 보험의 특성에 맞춰 가입절차를 간소화

3.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

◆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, 자율 보안체계 구축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

(1)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

- (현 황)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, 금융회사, 정부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, 그간 체계적인 소통·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
 - (개선안)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*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**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
- * (현행) 13개 금융기관 참여 → (개선) 각 금융협회 회원사, 예탁원, 거래소까지 확대
**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

(2)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

- (현 황) 사전적·획일적 규제체계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 구현을 저해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역량 강화에 미흡
 - (개선안) 규제체계를 사후점검·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, 금융 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
 -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, 「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」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 강화*
- * FDS 구축 및 운영 공통기준 마련, FDS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

(3) 빅데이터를 활용한 IT·금융 융합 지원

- ☐ (현 황) 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, 고객마케팅,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
- ☐ (개선안)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「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」 마련

III 기대 효과

- ☐ (국 민)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·서비스 선택권이 확대
 -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등 저비용·고효율의 서비스 이용 가능
- ☐ (핀테크 기업)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 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·질적 성장 가능
 -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제도 신설, 창업·운영 자금지원 활성화로 인한 창업부담의 감소
- ☐ (금융산업) '핀테크 사업자'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제고에 기여
 - 혁신적·창의적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가능

IV 추진 계획

- 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
 -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,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